

20년 이주노동자의 누나로…“더불어 따뜻한 세상 꿈꿔요”

2026
새해 희망 키워드 <3>공존
임세미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쉼터 팀장

“수십 년간 외국인 노동자들과 지내다 보니 어느 새 가족이 됐어요. 함께 잘 지내다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 ‘참 고맙고 따뜻한 쉼터였다’고 기억해준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임세미(여·64)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부설 단기쉼터(이하 쉼터) 팀장은 올해도 외국인 노동자들과 공존하며 함께 사는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공(公)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베푸는 쉼터 설립자 이철우 목사의 진심에 공감해 합류한 지 어느덧 20년. 소명의식으로 시작한 일이 삶의 일부가 됐다.

임 팀장은 이곳 쉼터에서 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으로 일터를 잃고 갈 곳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노동·채류 상담, 병원 진료 연계 등 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며 그들과 공존하는데 힘쓰고 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쉼터에는 가봉,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동티모르 등 12개국 출신 노동자들이 오갔다. 연간 평균 이용자는 2000명에 달하고, 하루 평균 7~8명이 머문다. 최근에는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쉼터는 365일 문이 열려 있는 ‘친정집’이다. 평일

쉼터의 베푸는 진심에 공감 합류 하루 7~8명, 연간 2000명 이용 갈 곳 잃은 노동자들의 ‘친정집’ 노동·채류 상담·병원 진료 도움 “고마운 쉼터로 기억해 주면 만족”

에는 일자리를 알아보고, 주말에는 쉬러 들르는 이들도 많다.

노동자들은 임 팀장을 ‘노나’라고 부른다. 스리랑카어로 존경의 의미를 담은 말로, 누나라는 애칭처럼 쓰인다.

임 팀장은 “‘노나’라는 말이 여전히 부끄럽다. 처음에는 내가 이 친구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숙해졌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임 팀장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족같은 존재다.

임 팀장은 “과거 머물렀던 ‘사만’이라는 친구가 미국에서 한국 기업 통역하며 성공했다고 연락이 왔다”며 “오갈 데 없는 우리한테 잘해준 걸 잊을 수가 없다고 울먹이면서 ‘성공했으니 미국 여행 오라’고 하는데 나도 눈물이 났다. 그저 고맙다”고 말했다.

다친 발이 부끄럽다며 숨기던 노동자의 발을 마사지해주고 파스를 붙여줬을 때 눈물을 흘리던 모습도 잊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 처우가 더 열악



6일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쉼터에서 임세미(왼쪽) 팀장이 쉼터에 머물고 있는 스리랑카 국적 다린두씨와 상담을 하고 있다.

했던 십수 년 전에는 육설과 부당 대우를 참지 못해 회사에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의 코리어드림이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는 그는 외국인 대우가 더 열악했던 십수년 전에는 회사에서 욕을 듣고 부당하게 대우 받는 걸 보면 내 자

식 일처럼 속이 뒤집어져 앉장서 싸우기도 했다. 때로는 회사에 찾아가 이들의 절박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최근 벽돌공장 외국인노동자 사건을 본 임 팀장은 속상하고 화가 나 나누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도 직접 참여했다.

임 팀장은 “이주노동자들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름을 불러주고,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하는 포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린두(26·스리랑카)씨는 한국 양식장 등에서 4년 10개월 일한 후, 스리랑카로 휴가를 다녀와 쉼터에 머물며 일자리를 찾고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 평가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 그는 시험에 합격해 가족들을 데려와 한국에서 같이 살고 싶은 꿈을 꾸고 있다.

그는 “쉼터는 친정집이자 아지트 같은 곳이다. 쉼터 덕분에 안정적으로 머물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쉼터는 광주시에서 연 1500만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4월에는 스리랑카 설립인 민족 행사를 맞아 전국에서 300여명이 찾아와 떡국을 먹고 축제를 즐기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성탄절에는 외국인 50명이 찾아 선물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임 팀장은 “젊은 시절 한국에 와서 일했다 모국으로 돌아가서 이 때를 추억하면 오갈 데 없고 돈 한푼 받지 않았던 나를 도와줬던 참 따뜻했던 곳이었다. 내가 부모가 돼보니 잔소리했을 법도 한데 참 인격적으로 존중해준 곳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양심껏 이들을 돕고 싶다.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따뜻함을 나눠주고 싶다”고 웃어보였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지난해 광주·전남, 땅도 바다도 역대 두번째로 더웠다

최근 3년 기온이 역대 1~3위

열대야 일수 28.6일 역대 2위

해수온도 17.7도 아열대화 가속

지난해 광주·전남은 땅도 바다도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나타나 광주·전남의 ‘아열대화’가 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연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연평균 기온은 15도로 2024년 15.9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2023년 연평균 기온이 15도로 역대 3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3년 기온이 역대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온 현상은 여름철과 가을철 전반에 지속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여름철과 가을철 평균기온은 각각 26.1도, 18도로 역대 1,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더위가 시작되고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

지며 폭염과 열대야 기록도 경신했다.

연간 광주·전남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도 2위를 기록했다.

폭염일수는 32.4일로 평년 7.5일 대비 4.3배가 많았고, 2024년 33.1일에 뒤이었다. 완도(44일), 장흥(35일), 해남(29일), 고흥(41)일에서 관측 이래 가장 많은 폭염 일수가 나타났다.

열대야일수는 28.6일로 평년 11.4일 대비 2.5배 많았으며 2024년 37.9일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그중 여름철 열대야일수는 25.7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광주(6월 19일) 완도(6월 20일) 고흥(7월 5일) 3개 지점에서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다.

해수면 온도는 17.7도로 2024년(18.6도)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상반기에는 해수면 온도가 최근 10년 평균보다 낮았지만, 하반기에는 최근 10년 평균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됐다.

특히 가을철 해수면 온도는 22.7도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1.4도 높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

다. 여름철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 데 이어 가을철 따뜻한 해류가 평년보다 많이 유입돼 높게 유지된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분석이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돼 6월 중반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며 이른 더위가 시작된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또 10월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이 영향을 주며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높은 기온이 지속된 것으로 봤다.

연강수량은 1394.4mm로 평년과 비슷했지만, 5·8·10월에는 평년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 기간이 6월 19일부터 7월 1일로 13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였지만, 7·8월에 광주 남구, 나주, 보성 등 13개 지점에서 1시간 최다 강수량이 80mm를 넘었다.

9·10월 가을철에는 잦은 비가 내렸다.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북서쪽의 차고 건조한 상층 기압골이 자주 내려오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이주단체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중단하고 노동 권리 보장하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6일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을 중단하고 노동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2026년이 돼야 한다”며 “‘제2의 두안’이 나오지 않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대 이주청년 두안의 죽음은 자유롭게 노동할 수 없는 한국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이지만 정책개선은 더

디다”며 비판했다.

앞서 베트남 노동자 두안 씨는 작년 10월 단속을 피해 대구 성서공단 내 공장 구석에 숨어 있다가 추락사했다.

이 단체는 “이주노동자 선발과 송출, 고용관리 전반에 공공성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책임져 중간착취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내일 출근길 기온 뚝…주말엔 눈발

전남 동부지역 건조특보 지속

광주·전남 지역 기온이 점점 떨어지며 추위지가 주말에 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내려오면서 8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3~5도 가량 낮아져 춥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고 예보했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4~3도, 낮 최고기온은 6~9도를 보이고 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7~1도, 낮 최고기온은 1~5도가 예상된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8~2도, 낮 최고기온

은 5~9도로 아침 영하권 추위가 지속되겠다.

주말인 10일에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밤 사이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눈은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수, 광양,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